AI시대, 계로 삶을 주도하다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① 계와 율, 그리고 불제자

sabbapāpassa akaraṇaṁ kusalassa upasampadā sacittapariyodapanaṁ
etaṁ buddhā na sāsanaṁ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基意 是諸佛教
모든 죄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니라.
〈법구경〉



불교에 귀의하면 실천윤리로서 누구든 계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범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실재보다 더 실제 같은' AI시대

최근 수많은 매체를 통해 AI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AI는 인공지능, 즉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AI 기술은 사람이 하기에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할 수도 있고, 사진을 편집하거나 음악과 영상을 만드는 문화적 창작도 할 수 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를 찾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나아가 과제나 논문까지도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스님을 대신해 의례를 집전하거나 법문도 할 수 있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며 창작하는 AI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처럼 AI는 인간을 도와주며 더 편리하고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이 있다.

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검색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보여 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AI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때론 AI 기술이 나의 대화를 듣고, 나의 검색 기록 등을 데이터화하고 축적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편리한 기술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AI가 실재보다 더 실제 같은 결과물을 생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나아가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진실 여부 판단 위한 지혜 필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의 진실과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열반 이후에 가르침의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사결정설(四決定說)'을 통해 바른 법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를 키워야 한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좋은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계'의 가르침이다.

여기 백거이와 도림 선사의 이야기를 보자. 중국 당대 대시인 백거이가 항주자사로 부임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 항주 진망산에서 수행하며 조과 선사로 불린 도림 선사를 알현했다. 백거이가 선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묻자, 선사는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다 하라'라는 〈법구경〉의 구절을 들려주었다. 백거이는 "세 살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라며 반박했다. 도림 선사는 다시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으나 여든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바른 삶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다. 도림 선사가 말한 '여든 먹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戒)다.

AI시대 바른 판단과 주도적 삶에
좋은 기준과 생활습관 정립 필요
지혜 발현하고 바른 삶 살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계 실천해야

계는 윤리적, 율은 규칙적 의미

우리는 '계'와 '율'을 '계율(戒律)'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며 사용한다. 하지만 둘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엔 의미에 차이가 존재한다. 계는 'sīla(尸羅)'이며 '습관성·경향·성격'이라는 의미와 '좋은 습관성·좋은 행위·도덕적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반면 율은 'vinaya(毘奈耶)'로 '이끌어 가다·가지고 가다·제외하다'라는 의미와 '훈련하다·교육하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2024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에서 열린 '국민오계 수계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결국 계는 윤리적, 율은 규칙적 의미로 요약해 설명할 수 있다. '계'는 '우리가 지키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율'은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나 단체가 강제적인 규율로서 적용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의 학과로 비유해 보면, 계는 '윤리학과'로, 율은 '법학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두 학과가 성격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계와 율도 가까운 듯 먼 관계라 할 수 있다.

계는 최소한의 생활방식

불교에 귀의하면 실천윤리로서 누구든 계를 받는다. 좁게는 오계부터 넓게는 보살계까지 불자라면 반드시 수계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수계한 계의 조문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도림 선사의 가르침처럼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를 받았기에 실천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실천 의지는 내가 가진 습관을 변화시킨다. 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발심한 의지가 잘 실행되도록 수계자의 마음속에서 의도(cetanā)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통해 좋은 습관을 키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계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으로,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결심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를 인도한다. 지혜를 발현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시작이 바로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놓지 않을 때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AI와 구별되는 것 역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진리를 보여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절절하다.

'바른 삶' 살기 위한 기준 '계'

우리는 AI를 포함한 거대한 지식들, 주변 사람들을 통한 정보들,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까지, 이루 다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 앞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하고 바른 정보인지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려는 자세는, 손쉽게 얻어지는 정보에 기대거나 맹목적으로 AI 기술에 의지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바른 판단을 위해 지혜를 키워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계는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 자신의 올바른 삶과 바른 가치관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계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물질과 그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더 중요시되는 가치전도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불교라는 종교는 수행을 통해 인간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상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인 까닭에 '도림 선사와 백거이의 일화'처럼 실천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수반한다.

그렇지만 계를 실천하는 어려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애초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릴 필요는 없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덧 스스로 바른 지혜로써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현대의 정보과학기술이나 지식 매체가 주는 편리함 또한 자신이 올바른 잣대를 갖고 주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판단의 기준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길 기원한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